

미혼모 홀로서기 보금자리

“우리 아이는 우리 손으로”

미혼모의 아이 기르기를 돕고 이들이 새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국내 유일의 모임인 ‘사람 사는 정을 심는 모임’(회장 신기남·40·변호사)이 계절마다 내고있는 소식지의 제목이다. 이 모임이 이런 제호를 내걸게 된 이유는 원래 이 모임이 우리 나라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시인 신경림씨, 아동문학가 이오덕씨 등이 이 모임의 주요 구성원으로 모이게 된 때는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뉴욕 타임스> <프로그레시브> 등 미국 언론이 다투어 한국을 ‘세계 제1위의 아기 수출국’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어 대단 지난 88년 가을이다.

우리 어린 겨레들이 해외로 팔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누군가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모은 게 이 모임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해외 입양을 막으려는 노력은 해외 입양아 가운데 60%가 미혼모의 자녀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미혼모의 집’을 운영하게는 데로 모아졌다.

“미혼모들은 대개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거나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여성 노동자 계층에서 많이 생겨나는데, 주위의 차가운 시선과 경제적인 어려움, 불투명한 미래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아이

‘미혼모 집’ 운영 ‘정을 심는 모임’

“아기수출 고통 씻자” 뜻모아 8쌍 공동가정 마련...자립돌봐

기르기를 포기하게 된다”는 게 이 모임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는 홍명숙(35) 간사의 설명이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유교적 윤리관이 뿌리깊게 남아 있어 미혼모의 자녀라면 ‘비윤리적인 아이’라는 편견이 많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이들을 입양하겠다는 희망자는 거의 없는 형편이어서 미혼모들이 기르기를 포기한 아이들은 대부분 해외로 입양된다.

미혼모들도 ‘국내 입양을 보내면 다시는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입양에 대해 개방적인 해외로 보내면 먼 훗날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는 생각에서 해외 입양을 선호한다.

홍명숙 간사가 모임이 만들어진 초창기에 미혼모들과 대화를 나누며 얻은 결론은 ‘미혼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스스로 기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차츰 입양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고쳐나가는 게 해외 입양을 막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결실을 맺게 된 ‘미혼모의 집’은 처음에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13평짜리 가정집을 빌려 시작했으나, 지금은 성북구 길음3동 510-55에 40평 남짓한 공간을 빌려 8쌍의 모자를 홍 간사와 20대의 보조 2명, 상담원 1명이 돌봐주고 있다.

이곳에 입주한 미혼모들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데, 월급에서 5만원만 생활비·육아비로 내면 나머지는 모두 저축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모임에서 배려하고 있다.

이 모임을 거쳐간 미혼모와 아이들은 2년 동안 모두 16쌍에 이르는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9쌍이 아이의 친부와 결합해 나갔다.

미혼부들도 미혼모만큼이나 주위의 질타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나, 이 미혼모의

집에서 안정되게 생활하고 있는 미혼모와 아이를 보면서 현실을 인정하게 돼 재결합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홍 간사는 설명한다.

이렇게 재결합한 이들은 이제는 평범한 가정을 꾸며 이 모임의 열렬한 후원자로 변해 있다고 한다.

친부와 재결합한 경우가 아니라도 미혼모가 자립해 스스로 아이를 계속 기르거나 국내 입양 또는 친부에게 아이를 넘겨 적어도 해외로 아이가 입양된 경우는 없다.

이 모임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봉사하는 홍 간사와 보조들은 그러나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이 미혼모의 집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제3세계 부녀자·아동 후원단체인 ‘인간의 대지’ 독일 지부로부터 매년 7만4천마르크씩 지원을 받아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해외 입양을 막고 우리 아이를 우리 손으로 키우는 게 이 모임의 설립 목적인데, 미혼모의 집 운영기금을 마련할 수 없어 해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현실이 부끄럽다”는 게 홍 간사의 말이다.

보사부에 기금 지원을 요청한 적도 있으나 ‘복지법인’을 설립하거나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이다.

법인 설립 또는 30명 이상 수용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2억~3억원의 자금이 필요해 결국 보사부는 지원할 뜻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홍 간사는 주장한다.

무조건 수용 인원을 늘려 감당도 못하느니보다는 소수의 사람이라도 올바르게 돌봐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서 문의전화는 많이 오지만 지금의 비좁은 시설로는 더 받을 수 없어 상담에만 응하고 있다.

연락처 986-0182.

<이상수 기자>

92.5.5